

담당부서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2133-8275
기반조성팀장	노경래	2133-8286
담 당 자	손창수	2133-8288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901-2540
도시활성화팀장	문성재	901-2551
담 당 자	한규진	901-2553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쪽

서울시 4.19사거리 일대 역사성 살린 '특화거리' 재생...21.6 완공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근현대역사+북한산 자연환경 특성 살려 재생... 9월 착공
- 4.19로 : 3개 테마거리 조성하고 안내시설·휴게공간 설치, 북한산둘레길·순례길 입구 정비
- 삼양로139길 일대 : 보도폭 최대 7m까지 확장, 쉼터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 중점
- 2개소 공사 동시 진행해 공사기간 단축...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으로 혼잡 최소화

- 서울시가 낙후되고 특색 없는 강북구 4.19사거리(국립4.19민주묘지 입구사거리) 일대 거리를 역사성과 장소성이 살아있고 걷기 편한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재생한다. 9월 중 착공해 '21년 6월 완공이 목표다. 총 42억 원이 투입된다.
- 좁고 불편한 보행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립운동부터 민주화운동까지 근현대 역사의 성지인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낸다.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같은 명소로의 접근성도 개선해 거리 자체가 역사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4.19사거리 일대는 국립4.19민주화묘지를 비롯해 광복군 합동묘소, 이시영 선생과 이준 열사의 묘까지 근현대 역사를 품은 성지이자,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그럼에도 좁고 낙후한 가로환경은 이런 역사·자연 명소로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특화거리로 조성되는 대상지 2곳은 ①4.19로(4.19사거리~아카데미 하우스, 연장 1.4km)와 ②삼양로139길 일대(▲삼양로139길(4.19민주묘지역~4.19민주묘지 입구, 연장 520m) ▲삼양로139가길(삼양로139가길 2~솔밭공원, 연장 260m) ▲삼양로(솔밭공원~삼양로 487, 연장 620m))이다.
- 우선, 4.19로는 인근에 위치한 다양한 근현대 역사문화 명소를 알리는 상징 시설과 쉼터 등 지역 주민·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다양하게 확충한다.
- 구간별로 각 공간의 경험적 연계를 고려해 ▲근현대 역사·문화의 거리 ▲민주·참여의 거리 ▲상생 문화예술거리 3개 테마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4.19로를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일대 맛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소풍길로 조성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입구에는 민주화의 태동을 상징하는 원형의 바닥패턴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과 4.19혁명의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시설이 설치된다. 근현대사기념관 앞 보도에는 선열들을 형상화한 별자리 조명이 설치된다. 독립운동가 유림선생 묘역 입구에는 휴게

공간이 조성된다.

- 협소했던 보도 폭도 확장(폭 2~3m→폭 2~5.9m)하고, 노후·파손 시설물 교체, 가로수 식재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 또 하나의 대상지인 삼양로139길 일대는 불편하고 낙후한 보행환경 개선에 방점을 뒀다.
- 보도 폭을 최대 7.1m까지 확장(폭 2.2~4.6m→폭 3.2~7.1m)하고 플랜터 식재, 가로수 보호판 교체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 곳곳에 자투리 쉼터가 조성되고 LED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시인성도 높인다. 대동천 복개 구간에는 물결 모양의 바닥포장으로 이 곳이 대동천이 있던 곳임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2곳의 공사를 동시에 착공, 진행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 안전 도우미를 곳곳에 배치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을 통해 공사진행 상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과 우회경로 활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특화가로 조성은 강북구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약 63만㎡를 역사·문화예술·여가 중심지로 조성하는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9.6.20. 확정·고시)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다.
 -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에 따라 4.19사거리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 일대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했다.

※ ‘중심시가지형’ : 지역의 특화된 산업·상업·역사문화자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예술 자원과 재생사업을 통해 향후 이 일대에 들어설 거점시설들을 ‘보행’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강북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통해 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의 마중물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화거리를 통한 차별적 이미지로 방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노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4.19사거리 일대 특화거리가 시민 누구나 쉬고 걸으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관광객들도 즐겨찾는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공사를 통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이 일대 상권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공사 개요 및 조감도

2. 삼양로139길 일대 보행환경가로 조성 공사 개요 및 조감도

붙임1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공사 개요 및 조감도

□ 사업개요

○ 공사개요

- 위치 : 4.19로 (국립4.19민주묘지입구 사거리 ~ 아카데미하우스)
- 규모 : 폭원 14m ~ 20m, 연장 1.4km
- 공사기간 : '20. 9. ~ '21. 6.

○ 주요 공사내용

-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도 확장(폭2~3m→폭2~5.9m) 및 도로 정비(차로 92a, 보도 52a)
- 순례길, 돌레길 입구 정비, 노후·파손 시설물 교체 및 가로수 40주 식재 등

◆ 기본구상(안)



◆ A-1구간 조감도



◆ A-2구간 조감도



◆ B구간 조감도



○ 추진일정

- 공사발주 및 착공('20.9월) → 공사준공('21.6월)

붙임2 삼양로139길 일대 보행환경가로 조성 공사 개요 및 조감도

□ 사업개요

○ 공사개요

- 위 치 : 삼양로139길, 삼양로139가길, 삼양로
- 규 모 : 폭원 4m ~ 25m, 연장 1.5km
- 공사기간 : '20. 9. ~ '21. 6.

○ 주요 공사내용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도확장(폭2.2~4.6m→폭3.2~7.1m) 및 LED표지판(7EA), 자투리쉼터(2개소), 플랜터 식재 등
 - 정돈된 가로환경을 위한 통일된 디자인 적용(동일한 포장 패턴을 적용한 대동천 물결모양의 스템프 포장, 가로수 보호판 교체 등)
- ※ 기본구상(안)



○ 추진일정

- 공사발주 및 착공('20.9월) → 공사준공('21.6월)